

2010.08.23 미래정책연구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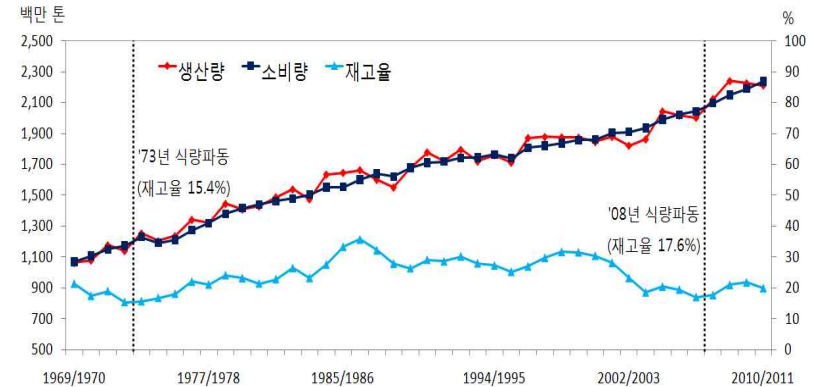
※ 지난 8월 18일에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당 연구원 원장이 발표한“국제 곡물가격 동향과 대응방향” 자료와 국제 곡물 관련 농수산물유통공사 자료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음.

□ 국제 곡물 수급동향과 전망

- 2010/11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0.6% 감소
 - 곡물 총공급량(이월량+생산량)은 26억 8,960만 톤으로 소비량을 4억 4,432만 톤 초과
- 2010/11년도 옥수수와 쌀 생산량은 증가, 밀과 콩 생산량은 감소
 - 2010/2011 옥수수와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각각 2.9%, 3.7% 증가하나, 밀과 콩은 각각 5.1%, 2.4% 감소
- 2010/11년도 세계 곡물 재고량 감소
 - 2010/11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은 증가하나 생산량이 감소해 기말재고율 전년대비 1.9%p 감소
 - 기말재고율: 21.7%(09/10) → 19.8% (10/11)
 - 세계 전체 곡물 재고 감소량 3,250만 톤 중 밀 재고 감소량이 1,920만 톤으로 59.1% 차지
- 2010/11년도 세계 밀 생산은 전년대비 5.1% 감소한 6억 4,573만 톤 전망
 - 그러나 공급량(이월량+생산량)은 8억 3,970만 톤으로 전년대비 0.7% 감소에 그침.
 - 밀의 주요 생산국은 EU-27개국(20.3%), 중국(16.9%), 인도(11.9%), 러시아(9.1%), 미국(8.9%), 캐나다(3.9%), 호주(3.3%), 우크라이나(3.1%) 등임.
 - 밀 생산이 가장 많이 줄어든 러시아는 전년대비 1,670만 톤 감소한 4,500만 톤 전망(27.1% 감소)

- 카자흐스탄 32.4%, 우크라이나 18.7%, 캐나다 22.6% 감소 전망
- 반면, 미국은 130만 톤 늘어난 6,164만 톤 전망(2.2% 증가)

<전체 곡물 수급동향>



자료 : USDA,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, 각 년도

- 2010/11년도 세계 밀 교역 불안
 - 작황부진 및 산불 등으로 러시아의 밀 수출금지, 우크라이나도 생산 부진으로 수출금지 고려
 - 2009/10년도 밀수출 비중: 러시아 14%, 우크라이나 7%
 - 그 외 EU-27개국, 캐나다, 카자흐스탄 등의 생산량 감소로 수출 감소 가능성
 - 2009/10년도 밀수출 비중: EU-27개국 16%, 캐나다 14%, 카자흐스탄 6%
 - 러시아 및 주요 수출국의 생산량 감소가 미국 및 호주 등의 생산량 증가에 의해 얼마나 상쇄될 지가 관건

□ 국제 곡물 가격동향과 전망

1. 곡물가격 동향 및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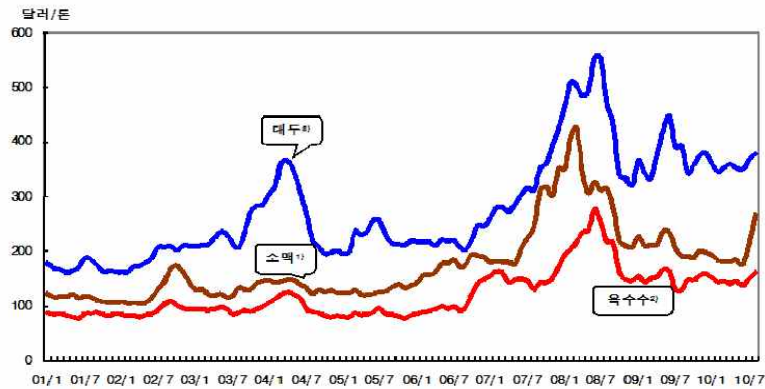
○ 2010년 7월 1일 이후 선물가격 단기 급등

<주요 곡물 선물가격 급등 추이>

단위: 달러

품목	기간			증감율 (7.1일자대비)
	2010.7.1일	2010.7.30일	2010.8.12일	
밀	184	231	266	44.6%
옥수수	151	160	166	9.9%
콩	333	369	378	13.5%

<밀·옥수수·콩 선물가격 추이>



주: (1) 소맥은 Kansas Hard Red Winter Wheat 2등급, (2) 옥수수는 Chicago Yellow Corn 2등급, (3) 대두는 Chicago 1등급

자료: USDA AMS and ERS(Average monthly closing price for the nearby futures)

○ 중장기 국제곡물가격은 점진적으로 상승하나 2007/08년보다는 낮을 전망

- 개도국의 경제성장, 축산물 수요 증가 등으로 식용 및 사료용 곡물수요 증가
- 바이오에너지용 곡물수요 증가는 세계곡물수요 증가의 또다른 요인

2. 단기급등 요인

○ 주요 밀 수출국의 생산량 감소 및 수출 물량 감소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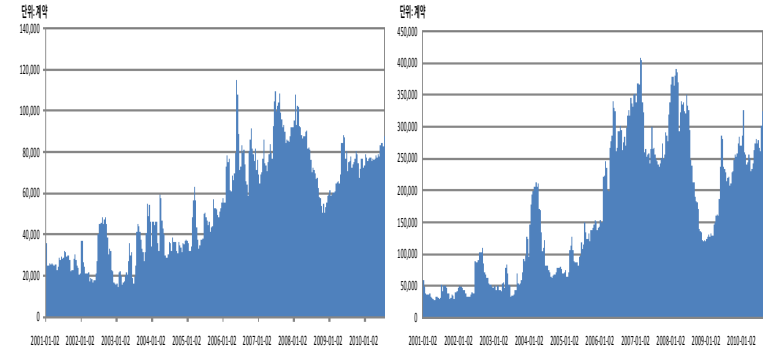
- 러시아, 카자흐스탄, 우크라이나 등 가뭄으로, 캐나다는 홍수로 생산량 감소
- 밀 수출 금지 조치(러시아 기 조치, 우크라이나 고려)

○ 국제 곡물가격의 저평가 인식 및 투기수요 거래 확대

- 2009.12월 이후 국제 곡물가격의 지속적 하락으로 최저점 인식 확산
- 투기적 거래(비상업거래 매수 포지션) 지속적 증가
 - 세계 유동자금이 곡물시장에 지속적 유입

(밀 비상업적 매수 포지션)

(옥수수 비상업적 매수 포지션)



○ 세계 곡물유통의 80% 이상을 좌우하는 곡물메이저(카길, 봉계, ADM, 드레 워스 등)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 높음.

- '73년, '08년 등 곡물파동 때마다 곡물메이저는 거대수익 거둬.

□ 국내 파급영향

○ 국제 곡물가격 변동이 국내 식품가격에 미치는 영향

<곡물가격 1% 변동 시 식품가격에 대한 파급영향>

단위: %

품목	식품 산업	파급 영향
밀	제분	0.594
	빵, 과자, 국수류	0.045
콩	유지 및 식용유	0.246
옥수수	전분 및 당류	0.363

자료: 한국농촌경제연구원, 애그플레이션의 농식품 부분 영향과 대응방향(2008).

○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 경영비 악화

- 생산비 중 사료비 비중 : 비육우 37.0%, 비육돈 53.6%, 육계 56.9%

<참고: 국내 업계 동향>

- **제분업계**는 8월 현재 10월 이후 도착 분을 구매계약중이며, 최근가격 급등에 따라 관망상태에서 소량단위로 구매하는 상황
 - 3~4개월분의 재고 보유, 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은 선도구매 후 운송·가공 등의 과정을 거치므로 약 3~6개월 소요
 - 강제 국면이 9월 이후까지 지속될 경우 하반기 중 가격인상 시도 예상
- **사료업계**는 금년 도착 분 구매를 거의 완료한 단계이며, 현재는 관망 상태에 있음(제분업계보다는 여유로운 입장).
 - 옥수수와 대체제이므로 가격 상황에 따라 사용 비율 조절 가능
 - 하반기에 국내 사료가격 인상으로 연계 가능성 낮음

자료: 농수산물유통공사

□ 시사점

- 러시아, 우크라이나 등 일부 생산국들의 밀 생산감소와 수출금지, 투기자금의 곡물매수 증가 등으로 최근 곡물가격이 급등했으나, 곡물 전체 생산량은 0.6% 감소에 그치고 재고율도 19.8%로 '08년의 애그플레이션과 같은 상황이 아님.

- 그러나, 곡물에 대한 투기적 순매수거래가 증가하고 일부 수출국의 수출금지 등 교역 불안 요인이 있어 주의 필요
- 또한 현재 재고율이 19.8%로 2개월분의 여유밖에 되지 않아 중장기적으로 가격상승추세가 예상되어 잠재적 수급불안 상존

<2008년 애그플레이션과 현재 비교>

구분	2008년	현재	
주요 밀 생산 감소 국가	호주	러시아	
(밀 생산 감소)	(1,160만톤)	(1,670만톤)	
곡물 전체 재고율	17.6%	19.8%	
환율	최고 1,425('08)	1,183	
유가(Dubai, \$/배럴)	최고 131.3('08)	74.38	
가격	옥수수(톤/달러)	208	147
	밀(톤/달러)	316	181
	콩(톤/달러)	469	361
가격 변화	'06.6월 대비 '08.9월 밀 70%, 옥수수 141%, 콩 125% 급등	2010.8월 선물가격은 6월대비 56.5% 상승	

□ 대응방향

- 곡물가격 상승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시스템 강화
 - '08년 곡물파동 이후 구축하여 시범운영 중인 곡물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및 활용 강화
 - 해외곡물 정보수집체계 구축
- 곡물 수입선 다변화 추진
 - 국제 곡물시장은 소수의 수출국과 수입국에 집중되어 일부국가의 수급여건 변동시 세계 곡물시장 교란
 - 주요수입국: 밀(우크라이나, 미국, 호주 3개국 95%), 옥수수(미국, 브라질 2개국 95%)
 - 곡물 수입국을 남미, 구소련연방국가 등으로 다변화

- 대형 곡물유통회사 육성 및 선물거래전문가 양성
 - 우리나라는 옥수수, 밀, 콩 수입량의 60% 정도를 곡물메이저를 통해, 나머지는 일본계 종합상사로부터 구입
 - 일본은 전농, 민간종합상사를 국제곡물유통회사로 육성 성공
 - 현재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중심으로 국제곡물메이저 육성 계획의 조기추진 필요
 -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곡물 선물거래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수립
- 쌀 생산 감축과 곡물 생산 확대 방안 강구
 - 만성적 과잉상태인 쌀 생산 감축과 해외 의존도 높은 밀, 콩, 옥수수 등 기타 곡물과 사료작물(조사료) 생산 확대 방안 강구
- 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해외농업개발 확대
 - 주요 곡물 생산국이나 수출국에 진출하여, 농경지 확보 및 수출 엘리베이터 건설 등 생산 및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활용해 식량의 안정적 확보 가능성 제고
- 식량 안정공급 및 원조에 대한 국제적 협력시스템 구축
 - UN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 세계적 곡물 생산 증대, 바이오연료용 곡물사용 조정, 수입의존도가 높은 후진국 및 개도국에 대한 식량원조, 곡물 수출규제나 비축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조정 등을 위한 국제 협력 시스템 구축 필요

주간농업·농촌동향	주요 품목별 비용절감 종합대책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

※ 본 자료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“주요 품목별 비용절감 종합대책”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.

□ 개요

- 쌀 : 농기계공동이용, RPC 효율화 등으로 '14년까지 각 단계별로 10% 절감
- 노지채소 : 낭비요인 해소 및 경영능력 제고로 '14년까지 생산비 20% 절감
- 시설채소 : 종묘비·난방비·인건비를 절감, '14년까지 30% 절감
- 과수 : 비용절감형 생산기반 구축 등으로 '14년까지 20% 절감
- 축산 : 질병근절, 적정사료량 급여 체계 정립 등으로 '14년까지 30% 절감
- 특작 : 신품종 개발·보급, 시설현대화 등으로 '14년까지 20% 절감

□ 주요내용

1. 쌀

- (생산비 절감) 들녘별 규모화, 농기계 공동이용, 과학경영 등을 추진하여 생산비 10% 절감 및 세계 최고 수준의 쌀품질 향상
 - 들녘단위 50ha 이상 규모로 200개소를 품종통일·공동농업 추진
 - 노동력이 많이 드는 공동육묘(20%→60), 공동방제(30%→80) 확대
 - 세계최고 쌀품질 향상 : ('09) 일본쌀의 85% 수준→('14) 일본쌀 품질수준
 - 농기계 공동이용 및 일괄작업 체계확립, 논에 벼 대신 고소득 작물재배를 확대하여 쌀 수급안정 및 타작물 자급을 향상
- (유통 효율화) RPC통합, 시설 현대화, 벼 사이버 거래 등 직접 마케팅을 강화하여 쌀 유통비용 10% 절감

- RPC 통합확대 : ('09) 262개소 → ('14) 200
- RPC 가공시설 현대화(70개소), 건조·저장 시설 확충(1,500개)
- 벼 유통활성화를 위한 선물거래소 및 대형유통회사 설립
- (가공·소비 확대) 쌀 소비감소 최소화, 쌀 가공산업 활성화 등으로 가공용 쌀 소비량을 생산량의 10% 수준으로 확대
- 「R10 Korea 운동」 연계, 밀가루 제품을 쌀제품으로 대체(10%)
- 소비자 기호에 맞는 쌀 가공제품 개발 및 소비확대 등

2. 노지개소

- (생산비 절감) 저비용 인프라 구축 및 비용절감형 농법 확산
- 품목별 주산지화 유도로 규모화 및 저비용 투입형 품종개발
 - 배추·고추는 강우 및 탄저병 저항성 품종개발, 양파는 종자 국산화율 제고
 - * 배추 분지마커 연구, 양파종자 국산화율(현재 : 20%)을 50%까지 제고
- 품목특성에 맞는 비용절감형 농법 확산
 - 고추 : 비가림재배 확대로 탄저병 예방 및 생산성 제고(증수효과 : 30%)
 - 마늘 : 종구비 절감을 위해 주아재배 기술 실천농가 확대(25%→50%)
 - * 주아재배 효과 : 종구비 30% 절감(생산비 17%절감), 생산성 15% 증대
- 품목대표조직이 비용절감 실천 우수 농가 사례를 D/B화하여 고비용 농가에 전파, 생산비 절감 유도
- (유통 효율화) 대표조직의 마케팅 기능 제고 및 유통형태 다양화
- 대표조직 기능 강화를 통해 유통의 규모화 및 효율성 제고
-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계약재배사업 산지유통인 참여 확대
- 원물위주의 유통형태를 반가공 등으로 다양화, 시장기능 강화
 - 다양화(예시) : 배추(절임배추 등), 고추(가루 등), 마늘·양파(쥬스, 기능성 제품 등)

3. 시설개소

- (생산비 절감) 에너지절감 등 투입비용을 줄이고 생산성 향상 도모
- 국내 환경에 적합한 신품종 개발 보급으로 종묘비 부담 완화
 - 토마토 : '12년까지 복합내병성 고품질 국산 품종 개발 보급
 - 딸기 : 국내산 품종 보급 확대(09: 56.4%→ 14 : 60%수준)
 - 파프리카 : 국내기후에 적합하고 수출국 기호에 부합하는 종자 개발
-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확대
 - 지열·목재펠릿 난방기, 다점보온케텐 등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추진

<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계획>

보급대상		'09년	'12년 보급목표		'20년 보급목표	
			면적	비용절감	면적	비용절감
신재생 에너지	지열	91ha	857ha	15백억원	6,300ha	116백억원
	목재펠릿	-	470ha	2.4백억원	5,200ha	26백억원
에너지 절감시설		861ha	3,300ha	15백억원	14,000ha	56백억원

- (인건비) 시설 현대화 및 자동제어장치 보급(생산성 향상 효과)
 - '14년까지 원예전문 생산단지 100개소 육성, 내재해형 규격 보급 확대
- (유통 효율화) 생산자단체 자율적 수급조절, 품질향상 및 안전성 관리 등을 통해 수출확대 추진
- 대표조직 역량 강화를 통해 출하시기 조절 등해 연중 공급체계 구축
- 일본, 동남아 시장분석을 통해 수출전략 품목 지속 발굴 육성
- 4. 과수
- (생산비 절감) 비용절감형 농법확산, 비용절감 생산기반 구축 등
- 사과 M9왜성대목 밀식재배, 포도 생력적 송이더듬기, 간벌을 통한 노지감굴 생력화 기술 등 비용절감형 농법 확산

- 사과M9 왜성대목 밀식재배로 전정·전정·수확 노력비의 약30% 절감 (121.4시간/10a → 86.1), 포도 생력적 송이다듬기(22.9인/10a → 3.4), 감귤 간별로 노력비 40%절감(111시간/10a → 66.8)

- 과수생산시설현대화(10계획 588억원), 생산단지기반정비(10계획 198), 우량 묘목 생산·공급체계구축 등 비용절감 생산기반 구축

- 우량 무병묘목 공급계획 : ('08) 0% → ('14) 20 → ('17) 60

○ (유통 효율화) 과수유통 전문화·조직화 기반인 거점APC 확충

- 거점 APC 확충 및 효율성 제고로 출하단계 유통비용 절감

- 거점APC 가동을 제고를 위한 저장·가공시설 등 시설 보완

* 거점 APC(누계) : ('09) 17개소 → ('12) 23 → ('14) 27 → ('17) 30

- 주산지 중심의 규모화된 과실광역 공동 브랜드 육성

- 산지유통조직과 연계하여 과실유통의 중심축으로 육성

* 과실유통의 전문화·규모화로 유통효율화 및 시장교섭력 강화

→ 과실브랜드 : ('09)12개 → ('10)14 → ('12)18 → ('14)25 → ('17)30

- 칼라박스 등 과대포장 방지로 소매단계 유통비용을 절감하고, 소포장(5kg, 2.5kg등) 활성화 등으로 부가가치 제고 등

- (과대포장) 7천원~15천원 → (개선) 2천원~3천원

5. 축산

○ (생산비 절감) 출하시기 단축, 질병근절, 생산체계 전환 등 추진

- 소 : 출하시기 3개월 단축, 조사료생산기반 조성 등으로 사료비 절감

- 출하 전(22~23개월, 25~26) 초음파 육질 검사를 통해 적기출하(출하시기 2~3개월 단축, 30→27개월령)

- 소비자의 웰빙(저지방)식품 선호에 맞춰 쇠고기 등급판정 제도 개선(10)

- 청보리 등 우량 종자 보급 및 조사료 품질향상 등으로 조사료 급여 확대 ('09 : 40% → '10 : 60%)

- 돼지 : 질병근절 및 시설현대화, 적정 사료량 급여 등으로 비용 절감

- 씨코백신 접종으로 MSY(시장 출하두수) 향상 : 15.2두 → 22 (증 6.8두2)

- 돼지 발육상태에 따른 적정 사료량 급여로 사료 효율제고

* 사료급여량 : (부진농가) 356kg/두 → (우수농가) 290 (감 18.5%)

- 닭 : 소형닭(1.5kg) 위주의 생산체계를 대형닭(2.5kg이상)으로 전환하여 부분육 생산 증대 및 사료비 절감

- 국별 출하제중(kg) : 한국 1.5, 일본 2.7, 중국 2.5, 미국 2.1

○ (유통 효율화) 대형패커를 육성, 도축·가공·유통단계를 일원화하여 유통 단계로 발생하는 유통비용 절감 도모

- 현행 5단계의 유통구조를 4단계로 축소(두당 9천원 절감 효과)

- 대규모 물량을 바탕으로 공세적 마케팅 전략 추진

- 위생·안전성 제고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도축장 구조조정 추진

- '09년 도축장 106개소를 '15년까지 40여개소로 구조조정

6. 외위/특작

○ (생산비 절감) 품종개발, 재배기법 전환 및 시설현대화 추진

- 백합 : 종구 대량증식 체계 구축,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등 추진

- 종구 대량증식 기술개발 보급(09: 600원/구 → 14: 300)

-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(08: 1,751천원/10a → 14: 1,400)

- 인삼 : 연작장해 해소, 기계화 적용시설 확대 보급으로 비용절감

- 토양훈증 신뢰성 제고, 논(畝) 적응 품종개발 등으로 임차료 인하 유도

- 다년간 사용이 가능한 철제지주목 확대(생산비 14%수준 절감)

- 버섯 : 균상재배 시설을 병재배 방식으로 현대화·자동화 추진

- 균상재배 시설 현대화 추진(09:60% → 14:75)

* 균상재배를 병재배로 전환할 경우 75% 비용절감 효과

- (유통 효율화) 신유통제도 도입, 유통경로 축소 및 가공품 개발
 - 백합 : 선진국 수준의 화훼종합유통센터 조성 및 신유통제도 도입
 - 샘플, Web 거래 등 신유통제도 도입으로 유통효율성 제고
 - 인삼 : 경매확대로 유통경로 축소, 제품류 관리체계 일원화
 - 검사체계를 개선,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시장기능 확대 유도
 - 버섯 : 산지유통조직의 시장교섭력 확보 및 가공품 개발
 - 지역 생산자조직의 역할을 강화하여 직거래 및 대량소비처 발굴
 - 연중 안정적인 가격형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가공품 개발